장 백 산 천 지

제 263 호 2015 년 10 월 10 일 토요일

사진보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부님의 은덕에 감사 드립니다

2015 년 추석이 다가올 즈음 밍후이왕에서는 세계 각 지역 많은 민중들이 파룬따파(法轮大法)창시인 리훙쯔(李洪志)선생에게 보내온 축하편지와 카드를 받았다. 각 지역 파룬궁수련생 외에 또 대륙의 일반 민중들도 축사를 보내왔다. 그들은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알았기에 생활 중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아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파룬따파하오" 소리친 무장경찰관

[밍후이왕] 나는 7 월 8 일, 한 수련생과 함께 우리 지역 파출소에 진상을 알리러 갔다. 우리를 본 파출소장이 다짜고짜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직 파룬궁(法輪功)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공법인데 당연히 해야죠. 오늘은 당신에게 진상을 말해 주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작년 2 월 8 일 당신들이 우리를 수갑에 채워 납치할 때 내 손목에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대했어요.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더는 장쩌민을 따라 나쁜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리둥성, 쉬차이허우, 구쥔산 등은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기에 응보의 대가로 판결받은 것입니다. 당신들도 가족을 생각해서 대법과 대법제자를 선(善)하게 대하고 중국공산당을 탈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무장경찰관 4 명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은 현(縣)경찰서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혔다. 우리를 본 그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파출소장이 파룬궁수련생이라고 하자, 무장경찰관 중 한 명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볼일을 마쳤으므로 그곳을 나왔다.

전기 침과 호랑이 의자 고문을 받았고 이가 맞아 전부 부러진 우춘옌(吴春延)이 장쩌민을 고소

(밍후이왕) 길림성 연길시 건축공사 전공인 56 세의 파룬궁수련생 우춘옌(吴春延)은 2015 년 7 월과 9 월에 최고검찰원에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형사고소장'을 발송했다.

우춘옌은 박해원흉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기에 그는 2 차례나 노동교양 박해를 받았다고 고소했다. 연변 노동교양소와 구태 노동교양소에서 전기침과 전기몽둥이 충격 등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독방에 감금당했다. 4~5 명 악인들에게 구타당해 이가 전부 부러져 한대도 남지 않았다. 우춘옌은 최고검찰원에서 장쩌민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우춘옌이 서술한 박해 사실이다.

나는'진선인(真善忍)'으로 자신을 요구해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연공을 하기 전에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쟁투심이 강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그를 건드리지 않고 만약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무조건 손을 쓴다.'는 것이 나의 준칙이었다. 현재 사회의 곳곳에서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에 봉착하게 되므로 나의 쟁투심은 갈수록 커졌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치려 해도 해낼 수가 없어 나의 마음은 괴로웠다. 수련후의 체득이라면 노력하여 '진선인(真善忍)으로 자신을 요구한 후 쟁투심이 없어졌고 명예와 이익에서도 다투지 않게 되여 진짜 마음이 순정하여 마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뜻한 느낌이었다. 그런 원한과 원망이 없는 유유자적한 느낌은 내가 예전에 오랫동안 찾아 헤맸어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것은 억지로 구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대법에서 수련해 얻은 것이며 파룬궁의 지혜와 대법이 위력이다. 친척과 친구들 모두 나를 변했다고 칭찬했다. 바로 이 과정에 나의 장염도 가뭇없이 사라져 신체는 더욱 건강해 졌다.

1. 2001 년 1 월 1 일, 나는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현수막을 펼쳤다,

(뒷면에 계속)

우춘옌(吴春延) 이 받은 일부분 고문시연

(앞면의계속)가 천안문 근무경찰에게 납치돼 북경 둥청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거기에서아래와 같은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⑴ 두 차례 혹독하게 맞다.

첫 번에는 경찰이 나더러 손을 머리 뒤로 감싸 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때 4~5 명 북경경찰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전기곤봉으로 혹독하게 때렸다.

전신이 참기 어렵게 고통스러웠으며, 건장하던 나의 신체는 3 일 동안이나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두 번째는 죄인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4~5 명 경찰이 전기곤봉으로 혹독하게 때렸는데 뒤 잔등에 큰 얼음장을 메고 있는 듯 했다.

⑵ 전기 침을 맞았다.

혹독하게 때려도 말을 듣지 않자 악인들은 나에게 전기 침을 놓았다. 전기 침을 혈에 꽂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워나 아주 고통스러웠다.

⑶ 전기곤봉으로 충격.

주요하게 목덜미 부위를 충격했다.

⑷ 고추 물 주입

경찰은 죄수를 사주해 나를 2 차례나 혹독하게 때렸고 그 죄수들이 또 나에게 고추 물을 주입했다.

2. 1 만 위안을 갈취했다.북경에서 지방에 돌아온 후 연길시 610 은 나의 직장과 집식구를 핍박해 각각 5000 위안씩 모두 1 만 위안을 갈취했다.

3. 북경에서 약 반달가량 박해받은 후 지방의 연길구치소에 감금 되였다가 노동교양 판결을 받고 연변 노동교양소에서 아래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⑴ 수면박탈을 당했다.

이른바 보증서와 결렬서 등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나를 때렸고, 사흘 밤낮으로 수면박탈을 했다.

⑵ 신 바닥으로 때렸다.

경찰은 신 바닥으로 나의 얼굴과 입을 쳤고 또 말을 못하게 하고 눈도 감지 못하게 했다. 한번은 리원빈이 나의 연로한 모친 앞에서 신 바닥으로 나의 얼굴을 쳐 나의 입에서 선혈이 흘러내렸고 이것을 본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⑶ 강박으로 채혈해 신체검사를 했다.

⑷ 무더운 여름날에 시멘트와 석회 일을 하여 온몸에 시멘트와 석회를 가득 뒤집어썼지만 피부가 손상 받게 하기 위해 씻지 못하게 했다..

⑸ 더러운 하수도 청소를 한 다음에도 씻지 못하게 한 후 또 화장실에서 쪽 걸상에 앉아 있게 해 엉덩이가 다 썩어 들었다

⑹ 독방에 가두었다.

이른바 보증서와 결렬서 등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나를 일주일 넘게 독방에 가두었다. 매일 작은 옥수수 떡 2 개만 주었고 독방은 겨울이면 추워서 떨고 여름에는 침침하고도 너무 더워 참기 힘들었다. 모두 인체의 한계를 넘는 박해로 신체에 아주 큰 손상을 주었다.

4. 2002 년 1 월 구태 노동교양소에 이송된 후 받은 박해 사실

⑴이가 맞아 전부 부러져 한대도 남지 않았다.

2002 년 3 월말, 구태 노동교양소에서는 견정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강제 전향을 진행했다. 4~5 명 사람이 집중하여 한 사람을 혹독하게 때리는데 사람이 맞아 변형 되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 보지 못했다. 탕버가 신 바닥으로 나의 얼굴을 때린 후 나의 얼굴은 또다시 변형됐다. 이번 박해에서 나의 이가 맞아 전부 부러져 한대도 남지 않았다.

⑵ 수감기한을 넘기다 。

5. 2003 년 3 월, 진학파출소 4 명 경찰이 나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대법자료를 강탈하고 나를 진학파출소로 납치해 감금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나를 호랑이 의자에 2 시간 넘게 묶어 놓았고, 물건으로 머리를 싼 다음 두 팔을 힘껏 뒤로 당겨 묶었다. 그 후 2 년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

6. 2 번째로 구태 노동교양소에서 아래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⑴ 황당하고도 저속한 고문을 받았다.

경찰 장신은 나의 두 다리를 벌리고 두 다리 중간에 80cm 너비의 침대를 놓고 가로타게 한 후 수갑을 채운 다음 허공에 달아매고, 동시에 한 관교(管教)가 나의 두 장딴지를 제각기 안으로 밀고 또 한 사람은 겨드랑이를 문질러 간지럽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발바닥을 문질러 간지럽게 하였다. 정말 황당하고도 저속한 고문이다.

⑵강박으로 채혈했다.

2005 년 사람을 눌러놓고 강박으로 채혈했다. 호사는 혈액이 왜 이렇게 묽은가? 고 했다.

⑶ 수감기한을 넘기다

7. 내가 여러 번 납치되고 고문박해를 받았고, 특히 어머니 앞에서 내가 호되게 맞았기에 어머니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다. 또 '610' 경찰들이 끊임없이 소란을 피워 놀란 어머니는 끝내 중풍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 날 수 없게 되었고, 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다.